

# 2024 카잔 브릭스 정상회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박정호** 세계지역연구2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선임연구위원 (jounghopark@kiep.go.kr, 044-414-1255)

**강부균** 세계지역연구2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bgkang@kiep.go.kr, 044-414-1242)

**김경민** 세계지역연구2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연구원 (kmkim@kiep.go.kr, 044-414-1507)



## 차 례

1. 배경과 함의
2. 제16차 브릭스 정상회의 주요 내용
3. 시사점

## 주요 내용

- ▶ 2024년은 브릭스(BRICS)가 글로벌 무대에 등장한 지 18년이 된 해이자, 브릭스 플러스(BRICS+) 구상하에 새로운 회원국이 공식적으로 가입하면서 외연을 확장하는 전환점이 된 해임.
  -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신흥경제 5개국이 주축인 비공식 대화협의체로, 2024년 1월 1일부로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아랍에미리트(이하 UAE)가 신규로 가입함에 따라 회원국이 9개국으로 확대됨.
  - 2023년 기준 브릭스 9개 회원국의 인구는 세계 인구의 44.8%를 차지하며, GDP(PPP) 규모는 전 세계의 35.8%에 달함.
- ▶ 이러한 배경하에 2024년 10월 22~24일 제16차 브릭스 정상회의가 의장국인 러시아 카잔에서 '공정한 글로벌 개발·안보를 위한 다자주의 강화'를 주제로 개최됨.
  - 브릭스 9개 회원국은 카잔 선언 채택을 통해 △다자주의 세계질서 구축, △세계 및 지역 안정과 안보를 위한 협력 강화, △경제·산업 및 금융 협력 증진, △인적교류 확대에 합의함.
  - 특히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강화, △파트너국(partner countries) 지위 신설을 통한 외연 확장, △확장된 브릭스 내 연대 강화 및 제도 개선, 그리고 △자국 통화 사용·결제 시스템 협력 확대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함.
- ▶ 이번 정상회의는 회원국 확대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정상회의인 만큼 브릭스 플러스 구상의 기반을 공고화하는 한편, 파트너국 선정, 브릭스 플러스/아웃리치 형식의 회의를 통해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둠.
  - 브릭스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파트너국(partner countries) 지위를 도입함으로써 13개국(튀르키예,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알제리, 나이지리아, 우간다, 볼리비아, 쿠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에 파트너국 자격을 부여하며 외연 확장 움직임을 지속·강화함.
- ▶ 현시점에서 브릭스의 미래에 대해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브릭스가 세계경제의 화두이자 중요한 변화의 상징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며, 세계의 다수를 차지하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관심이 증대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서 브릭스의 위상과 영향력은 확대될 가능성이 큼.
  -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중 브릭스 국가가 7개국으로 확대되고, △아세안(ASEAN) 회원국 10개국 중 4개국이 브릭스에 참여하게 됨.
  - 이에 향후 브릭스와 글로벌 사우스 관계 발전에 대한 주변국의 정책대응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1. 배경과 합의

■ 2024년은 브릭스(BRICS)가 글로벌 무대에 등장한 지 18년이 된 해이자, 브릭스 플러스(BRICS+) 구상하에 새로운 회원국이 공식적으로 가입하면서 외연을 확장하는 전환점이 된 해임.

-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신흥경제 5개국이 주축인 비공식 대화협의체이며, 2024년 1월 1일부로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아랍에미리트(이하 UAE)가 새롭게 가입함에 따라 회원국이 9개국으로 확대됨(그림 1 참고).

○ [출범 경과 ▷2001년 골드만삭스(Goldman Sachs)가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경제대국인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알파벳 첫 글자를 따 브릭스(BRICs)로 명명, ▷2006년 9월 러시아 주도로 브릭스의 출발점이 되는 장관급 회의 최초 개최(UN 총회 연계), ▷2008년 7월 비공식 정상회의 개최(G8 정상회담 연계), ▷2009년 6월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에서 제1차 브릭스 정상회의 개최, ▷2011년 4월 제3차 정상회의(중국 산야)에 신규 회원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이 합류하며, 브릭스 명칭이 현재의 브릭스(BRICS)로 공식화]

그림 1. 브릭스 회원국 현황



자료: Wikimedia Commons, "Map of BRICS countries"(검색일: 2024. 10. 25.)를 바탕으로 저자 보완.

○ [브릭스 플러스 구상과 회원국 확대 경과 ▷2017년 9월 제9차 정상회의(중국 샤먼): 중국 주도로 개발도상국, 비브릭스 국가들과 보다 긴밀한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브릭스 플러스 구상 출현, ▷2022년 6월 제14차 정상회의(중국 베이징): 브릭스 플러스/아웃리치(outreach) 협력을 통한 브릭스의 개방성과 포용성 강조,<sup>2)</sup> ▷2023년 8월 제15차 정상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아르헨티나, 이집트, 에티오피아,

1) BRICS Portal, "History of BRICS"; South African Government, "Fifth BRICS Summit - general background"(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4. 10. 25.).  
2) 브릭스 아웃리치 개념은 다음과 같이 이전 정상회의를 통해 주로 지역주의 접근 방식으로 나타난 바 있음. △2013년 제5차 정상회의(남아공 더반): '브릭스와 아프리카: 개발, 통합, 산업화를 위한 파트너십'을 주제로 아프리카 개발협력 활성화 모색, △2014년 제6차 정상회의(브라질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UAE를 새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기로 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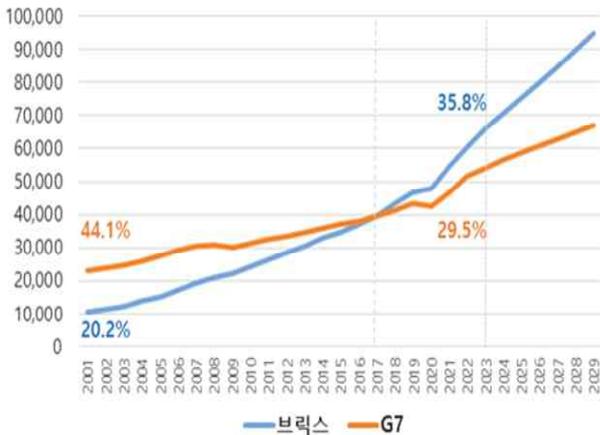
\* 아르헨티나는 '23. 12. 신정부 출범 이후 가입 결정을 철회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가입 결정을 보류 중임.<sup>3)</sup>

■ 그동안 브릭스는 경제 규모를 지속 확대하며,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제고해 왔음.

- 2023년 기준 브릭스 9개 회원국의 인구는 약 35억 9,800만 명으로 세계 인구(약 80억 2,500만 명)의 44.8%를 차지하며, GDP(PPP) 규모는 66조 달러를 상회해 전 세계의 35.8%에 달함.<sup>4)</sup>
  - 2001년 기준 브릭스의 경제 규모는 전 세계 GDP(PPP)의 20.2% 수준이었으나, 2017년을 기점으로 주요 7개국(G7)의 경제 규모를 앞질렀으며, 지속적인 확대 추세임(그림 2 참고).
  - \* 명목GDP 기준으로 볼 때, 브릭스의 경제 규모(전 세계 명목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는 2001년 10%에서 2023년 25.9%로 확대되었으며, G7은 64.5%에서 44.8%로 줄어들며 그 격차가 현저히 축소
  - 다만 2023년 기준 브릭스의 총경제 규모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52.3%에 달하며, 그다음으로 인도(22.1%), 러시아(9.9%), 브라질(6.8%), 이집트(3.2%) 순임(그림 3 참고).
  - \* 2029년 추정치 기준, 인도가 브릭스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3%까지 확대될 전망(중국 51.4%, 러시아 8.5%, 브라질 6.1% 등)<sup>5)</sup>

그림 2. 브릭스의 경제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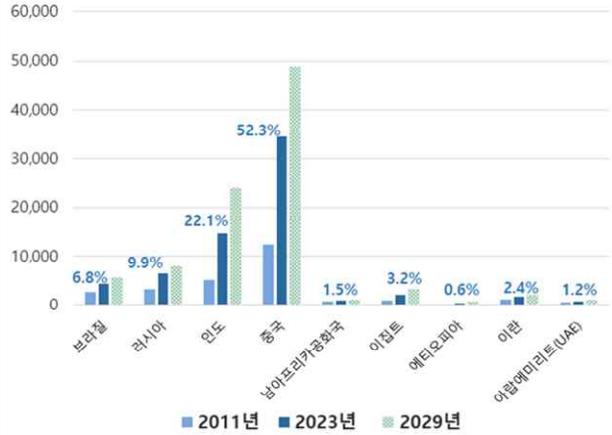
(단위: 십억 달러)



주: 1) GDP(PPP) 기준이며, 2024년부터는 전망치.  
2) %는 2001년(좌)과 2023년(우) 전 세계 GDP(PPP)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IMF, WEO DB(검색일: 2024. 10. 25.).

그림 3. 브릭스 회원국별 경제 규모

(단위: 십억 달러)



주: 1) GDP(PPP) 기준. 2029년은 전망치.  
2) %는 2023년 브릭스의 총 GDP(PPP)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IMF, WEO DB(검색일: 2024. 10. 25.).

포르탈레자: '포용적 성장: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주제로 브릭스와 남미 국가들 간 협력 증진 모색, △2016년 제8차 정상회의(인도 고아): '포용적·집단적 해결책 구축'을 주제로 벵골만 다분야 기술경제협력기구(BIMSTEC) 회원국(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부탄, 네팔, 태국, 미얀마)과의 협력 활성화 모색, △2018년 정상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아프리카의 브릭스: 4차 산업혁명 시대 포용적 성장과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을 주제로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발전 모색.

3) "Argentina formally rejects BRICS membership"(2023. 12. 29.), DW; "Is Saudi Arabia a Brics member or not? A curious case of invitation, acceptance and a delay"(2024. 10. 22.), Firstpost(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4. 10. 25.).  
4) 인구는 세계은행 WDI DB(검색일: 2024. 10. 25.) 참고.  
5) IMF, WEO DB(검색일: 2024. 10. 25.).

- 2023년 브릭스는 남아공과 브라질을 제외한 7개 회원국이 세계 평균 성장률(3.3%)과 G7의 평균 성장률(1.9%)을 상회하는 성장세를 보였음(표 1 참고).
- o 2023년 인도(8.2%)와 중국(5.3%)을 비롯해 에티오피아(7.2%), 이란(5.0%)이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시현함.

표 1. 브릭스 회원국별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구분	2001	2011	2021	2022	2023	2024	2025	
브릭스	브라질	1.4	4.0	4.8	3.0	2.9	3.0	2.2
	러시아	5.1	4.0	5.9	-1.2	3.6	3.6	1.3
	인도	4.8	5.2	9.7	7.0	8.2	7.0	6.5
	중국	8.3	9.6	8.4	3.0	5.3	4.8	4.5
	남아프리카공화국	2.7	3.2	5.0	1.9	0.7	1.1	1.5
	이집트	3.5	1.8	3.3	6.7	3.8	2.7	4.1
	에티오피아	7.4	11.4	6.3	6.4	7.2	6.1	6.5
	이란	2.4	2.6	4.7	3.8	5.0	3.7	3.1
	아랍에미리트(UAE)	1.4	6.2	4.4	7.5	3.6	4.0	5.1
G7 평균	1.3	1.7	5.8	2.6	1.9	1.7	1.7	
세계 평균	2.5	4.0	6.6	3.6	3.3	3.2	3.2	

주: 2024~25년은 추정치.  
자료: IMF, WEO DB(검색일: 2024. 10. 25.).

■ 2024년 브릭스는 당초 순회의장국이었던 브라질(24년 G20 의장국)을 대신해 러시아가 의장직을 맡았으며, 러시아는 의장국으로서 △브릭스 신규 회원국과 소통·연대 강화, △브릭스 플러스/아웃리치 형식을 통한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강화, △브릭스 역내 자국통화 사용 확대 및 결제 시스템 협력 강화 등을 우선 과제로 제시함.<sup>6)</sup>

- 브릭스 정상회의는 해당 연도 의장국에서 개최됨에 따라 금번 제16차 정상회의는 의장국인 러시아 카잔에서 개최되었으며, 신규 회원국이 공식 합류함으로써 '확장된 브릭스의 변화와 과제를 모색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큰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었음.<sup>7)</sup>
  - o 이번 행사에 36개국과 6개 국제기구(UN 사무총장 포함), 24개국 국가원수 등 총 5,255명의 공식 대표단이 참석함.
  - o 러시아는 1월 1일 순회의장국을 수임한 후, 핵심 행사인 정상회의를 앞두고 러시아 내 13개 도시에서 200건이 넘는 연계 행사(외교·안보, 경제·산업, 금융, 문화·인적 교류 등)를 추진함.<sup>8)</sup>

■ 본고에서는 제16차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카잔 선언을 바탕으로 주요 논의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브릭스의 방향과 고려사항을 검토하며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함.

6) BRICS Russia 2024, "Priorities of the Russian Federation's BRICS Chairship in 2024"(검색일: 2024. 10. 26.).  
7) 제5차 정상회의(13. 3. 남아공 더반)에서 순회의장국 순서를 브릭스 명칭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순으로 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8) "BRICS summit in Kazan ends successfully — Putin"(2024. 10. 25.), *TASS*(검색일: 2024. 10. 26.).

표 2. 역대 브릭스 정상회의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제1차 2009년 6월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	· 국제금융기관 개혁 필요: 신흥국·개발도상국의 대표권, 발언권 강화 ·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다양한 국제통화 시스템 필요성 강조
제2차 2010년 4월 브라질 브라질리아	· 민주적이고 공정한 다극적 세계질서를 위한 연대 강조 · 회원국 간 현지통화 무역결제협정을 포함한 통화협력의 타당성 연구 협의 ·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 배격 및 다자간 무역체제의 중요성 강조
제3차 2011년 4월 중국 산야	▶ 주제: 폭넓은 비전, 공유된 비영 · 남아공 합류(10. 12. 최종 결정)로 브릭스(BBRICS) 명칭 공식화 ·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강화 및 신흥국·개발도상국의 목소리 반영 필요성 강조
제4차 2012년 3월 인도 뉴델리	▶ 글로벌 안정·안보·변영을 위한 브릭스 파트너십 · 국제금융기관에서 신흥국·개발도상국의 대표성 강화 · 브릭스 차원의 신개발은행(NDB) 설립 가능성 검토
제5차 2013년 3월 남아공 더반	▶ 브릭스와 아프리카: 개발, 통합, 산업화를 위한 파트너십 · △브릭스 싱크탱크 이사회(BTTC) 설립, △브릭스 회원국 간 위기대응기금(CRA) 구축 합의 ·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NEPAD) 틀 내 아프리카 국가들의 산업화 및 인프라 개발 지원 논의
제6차 2014년 7월 브라질 포르탈레자	▶ 포용적 성장, 지속 가능한 해결책 · 신개발은행(NDB) 설립협정 서명 환영 · 브릭스 위기대응기금(CRA) 설립조약 서명 환영
제7차 2015년 7월 러시아 우파	▶ 브릭스 파트너십-글로벌 발전을 위한 강력한 요인 · 신개발은행(NDB)과 브릭스 회원국 개발은행 및 관련 기관 협력협정 체결 환영 · 브릭스 역내 거래에서 자국통화 사용 확대 논의 지속 필요 · 브릭스 경제 파트너십 전략 채택: 무역·투자, 에너지, 농업, 과학기술 혁신, 금융 등 협력 확대
제8차 2016년 10월 인도 고아	▶ 포용적·집단적 해결책 구축 · 벵골만 다분야 기술경제협력기구(BIMSTEC) 회원국(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부탄, 네팔, 태국, 미얀마) 정상 초청 · 신개발은행(NDB)의 브릭스 회원국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최초 대출 승인 및 그린본드 발행 환영
제9차 2017년 9월 중국 샤먼	▶ 브릭스: 더 밝은 미래를 위한 더 강력한 파트너십 · 브릭스 플러스(BRICS+) 구상을 통해 신흥국·개발도상국 등 비브릭스 국가와의 대화와 협력 활성화 필요성 강조 · ICT 협력 촉진을 위한 브릭스 미래 네트워크 연구소 설립 모색
제10차 2018년 7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 아프리카의 브릭스: 4차 산업혁명 시대 포용적 성장과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 · 브릭스 신산업 혁명 파트너십(PartNIR) 설립 환영 · 아프리카의 인프라 개발과 연결성 강화 논의
제11차 2019년 11월 브라질 브라질리아	▶ 브릭스: 혁신적 미래를 위한 경제 성장 · 브릭스 신산업 혁명 파트너십(PartNIR)을 통한 역내 산업, 과학단지, 혁신센터, 기술비즈니스 인큐베이터, 기업 네트워크 설립 추진
제12차 2020년 11월 러시아 모스크바(비대면)	▶ 글로벌 안정·공동 안보·혁신 성장을 위한 브릭스 파트너십 · △브릭스 경제 파트너십 전략 2021~25 이행 강조, △브릭스 투자 원활화 협상안 채택 환영: 중소기업 비즈니스 환경 개선
제13차 2021년 9월 인도 뉴델리(비대면)	▶ 브릭스 15주년: 지속성·통합·합의를 위한 브릭스 협력 · 15주년 주요 성과로 신개발은행(NDB), 위기대응기금(CRA), 에너지연구협력플랫폼(ERCP), 신산업 혁명 파트너십(PartNIR), 과학 및 기술, 혁신 프레임워크 등 강조
제14차 2022년 6월 중국 베이징(비대면)	▶ 수준 높은 브릭스 파트너십 촉진, 글로벌 발전을 위한 새 시대 개막 · △브릭스 플러스 및 아웃리치(outreach) 협력을 통한 브릭스의 개방성, 포용성 지지, △브릭스 확장 과정에 대한 논의 촉진 · △브릭스 서비스 무역 네트워크(BTSN) 설립 검토, △브릭스 금융 싱크탱크 네트워크 설립 환영
제15차 2023년 8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 브릭스와 아프리카: 성장 가속화·지속 가능한 개발·포용적 다자주의를 위한 파트너십 · △브릭스 디지털 경제 워킹그룹 설립 환영, △브릭스 중소기업 협력 프레임워크 및 과학기술혁신(STI) 프레임워크 지지 ·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브릭스 참여에 대한 관심 환영 · 아르헨티나,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를 2024년 1월 1일부터 브릭스 정회원국으로 초대 결정
제16차 2024년 10월 러시아 카잔	▶ 공정한 글로벌 개발·안보를 위한 다자주의 강화 · '브릭스와 글로벌 사우스: 함께 만드는 더 좋은 세상'을 주제로 브릭스 플러스/아웃리치 형식 회의 개최 · 파트너국(partner countries) 지위 신설을 통해 13개국에 파트너국 자격 부여

자료: "BRICS: Sources of Information-Instroduction," Library of Congress; "XIII BRICS Summit: New Delhi Declaration"(<http://www.brics-summit.org/2021/09/09/>); "XIV BRICS Summit Beijing Declaration"(2022. 6. 23.); "XV BRICS Summit Johannesburg II Declaration"(2023. 8. 23.); "Приоритеты председа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объединении БРИКС в 2024 году"(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4. 10. 26.) 참고하여 저자 작성.

## 2. 제16차 브릭스 정상회의 주요 내용

■ 2024년 10월 22~24일 러시아 카잔에서 ‘공정한 글로벌 개발·안보를 위한 다자주의 강화’를 주제로 제16차 브릭스 정상회의가 개최됨.

- 9개 회원국 정상은 카잔 선언을 채택하고 △다자주의 세계질서 구축, △세계 및 지역 안정과 안보를 위한 협력 강화, △경제·산업 및 금융 협력 증진, △인적교류 확대에 합의함(의제별 내용은 [표 3] 참고).<sup>9)</sup>

■ 브릭스는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강화, △파트너국(partner countries) 지위 신설을 통한 외연 확장, △확장된 브릭스 내 연대 강화 및 제도 개선, 그리고 △자국 통화 사용·결제 시스템 협력 확대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함.

- [글로벌 사우스와 협력 강화 정상회의 마지막 날 ‘브릭스와 글로벌 사우스: 함께 만드는 더 좋은 세상’을 주제로 열린 브릭스 플러스/아웃리치 형식 회의에는 브릭스 회원국과 일부 파트너국, 독립국가연합(CIS),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신흥개발도상국 등 36개국 정상 및 고위급 인사가 참여함.<sup>10)</sup>

- [파트너국 신설·외연 확장] 튀르키예,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알제리, 나이지리아, 우간다, 볼리비아, 쿠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13개국이 브릭스 파트너국이 됨.<sup>11)</sup>

- [브릭스 내 연대 강화 및 제도 개선 외연 확장에 따른 회원국 간 연대 및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의 노력 의지를 재확인함.

- [자국 통화 사용·결제 시스템 협력 확대] 브릭스 국경 간 지불 이니셔티브를 통한 자국 통화 결제를 장려하고 브릭스 역내의 금융 거래 시 자국 통화 사용 활성화에 합의함.

○ 다만 브릭스 국경 간 지불 이니셔티브에 ‘자발적(voluntary)이고 구속력 없는(non-binding)’이라는 표현을 덧붙여 비구속성을 강조함.

■ 이 외에도 브릭스 회원국들은 의장국인 러시아가 제안한 브릭스 곡물거래소와 투자 플랫폼 창설 이니셔티브에 합의했으며, 러·우 전쟁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함.

- [곡물거래소] 비료를 포함한 농업 전반의 무역 원활화를 위한 브릭스 곡물거래소 설립·발전 이니셔티브를 환영함.

- [투자 플랫폼] 브릭스 및 글로벌 사우스로의 투자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 신개발은행(NDB)을 활용한 새로운 투자 플랫폼 창설 이니셔티브를 지지함.

- [러·우 전쟁]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와 외교를 통한 중재와 조정을 이어가는 데 뜻을 모음.

9)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XVI BRICS Summit Kazan Declaration”(검색일: 2024. 10. 24.).

10) 브릭스 플러스는 모든 비브릭스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광의의 개념이며, 브릭스 아웃리치는 의장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과의 협력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지역주의적 접근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음. “Что сказали Путин и лидеры зарубежных стран на заседании «БРИКС плюс/аутрич»”(2024. 10. 24.), *Ведомости*(검색일: 2024. 10. 27.); “С какими результатами БРИКС подошел к саммиту в Казани”(2024. 10. 22.), *РБК*; RIAC(2023. 4. 17.), “BRICS-Plus: the New Force in Global Governance”(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4. 10. 26.).

11) “13 стран получили статус государств-партнеров БРИКС”(2024. 10. 24.), *Коммерсантъ* (검색일: 2024. 10. 26.).

- 10월 24일 개최된 브릭스 플러스/아웃리치 회의에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어 브라질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을 위한 ‘평화의 친구’ 그룹을 출범시킨 점’을 언급하며, 세계 평화와 발전을 위한 글로벌 사우스와의 연대 강화 필요성을 강조함.<sup>12)</sup>

**표 3. 카잔 선언 주요 내용**

구분	의제별 주요 내용
<b>[다자주의 세계질서 강화]</b>	
지지 표명	- 다자주의, UN 현장의 의도와 원칙을 포함한 국제법, WTO의 개발도상국을 위한 특별대우(S&DT), 글로벌 금융안전망(GFSN)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 글로벌 의사결정 과정에 신흥개발도상국, 최빈개발도상국(아프리카, 중남미 등)의 참여 확대 및 여성(특히 신흥개발도상국 출신)의 국제기구 참여 확대 - UN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과 UN 사무국 직원 구성에 지리적 대표성 확대 등 광범위한 UN 개혁 - 신흥개발도상국의 대표성 확대를 위한 IMF 할당량 및 IBRD 지분 재조정 등 브레튼우즈 체제 개혁
일방적 조치 반대	- 일방적인 무역제한 조치와 국제법에 반하는 일방적인 경제제재 및 2차 제재 해제 촉구
포용성, 다양성 촉진	-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2030 의제 및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이행 시 국가별 특성 및 차이를 고려한 형평성, 포용성 추구
<b>[세계 및 지역의 안정과 안보를 위한 협력 심화]</b>	
기본 입장	- 브릭스 정치·안보 다이얼로그 강화 - 세계 여러 지역 내 폭력의 확대와 무력 충돌의 지속 우려 - 국가 간, 사회 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와 원칙은 관용과 평화로운 공존 - 국제 인도법 존중과 인도적 지원의 지속 제공 필요
지역 이슈에 관한 입장	- [중동 및 북아프리카] 역내 충돌과 불안정의 지속에 대한 우려,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의 상황과 인도주의적 위기 우려, 팔레스타인의 UN 가입 지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한 레바논 남부지역의 민간인 사망과 민간 기반시설 파괴 규탄 및 즉각적인 군사행동 중단 요구, ICT 첨단기술을 활용한 테러 공격 증가 우려, 홍해와 바브 알만다브 해협에서 모든 국가의 선박 항해권·자유 보장, 시리아의 주권과 영토보전 준수, 주시리아 이란 영사관 공격(24. 4. 1.) 규탄 - [우크라이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와 외교를 통한 중재와 조정 지지 - [이란]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의 완전한 이행 중요 - [아프리카] ‘아프리카 문제는 아프리카 스스로 해결’ 원칙 강조, 아프리카 국가의 대 테러 역량 강화 지원 촉구, 수단에서 격화되는 폭력과 인도주의적 위기에 우려 표명, 수단 주재 아랍에미리트(UAE) 대사관저 공격 규탄, 아이티 안보·인도주의·경제 상황의 지속적 악화에 우려 표명 - [아프가니스탄] 조속한 평화 합의 필요, 인도적 지원 제공과 기본권 보장
안보위협 요인에 관한 입장	- [무기]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와 군비 축소 요구, UN 안보리 결의안 1540 이행 촉구, 우주 군비경쟁(PAROS)과 무기화 예방 지지, 확산 방지와 기술의 평화적 이용의 균형을 고려한 무기 분야 대화와 협력 강화 - [테러리즘] 모든 형태의 테러를 명백히 규탄, 브릭스의 테러방지 협력 강화, 불법적이며 테러 목적을 위한 △불법 자금 흐름, △자금 세탁, △테러자금 조달, △마약 거래, △암호화폐를 포함한 신기술 오용 등 예방 및 퇴치, 브릭스 내 자금 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 관련 대화 확대 촉구 - [마약] 불법 마약의 생산, 거래, 남용 우려, 마약 퇴치를 위한 협력 강화 - [ICT] ICT 관련 도전과제와 위협 인식, 가짜 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와 디지털 플랫폼에서 증오 표현 확산 우려 - [기타] 국제적 조직범죄 대응, 부패방지 및 퇴치 관련 협력 촉진

12) The State Council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2024. 10. 24.), “Full Text: Address by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at ‘BRICS Plus’ leaders’ dialogue”(검색일: 2024. 10. 27.).

구분	의제별 주요 내용
<b>[경제·산업 및 금융 협력 발전]</b>	
기본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학적·지경학적 분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다자간 협력이 필수</li> <li>- 브릭스 회원국 간 경제협력 중요성 인식</li> <li>- 선진국의 개발재원 약속을 이행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도상국과 협력 장려</li> </ul>
경제·산업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개방적인 공급망이 필수</li> <li>- 세계 최대 천연자원 생산국들이 모인 브릭스 역내 가치사슬 협력 강화 중요성 인식</li> <li>- 에너지 상품·서비스의 주요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브릭스 국가 간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 강화 필요성 강조</li> <li>- 브릭스 곡물(상품)거래소 설립 및 다른 농업 분야로의 확대를 목표로 하는 러시아의 이니셔티브 지지</li> <li>- 브릭스 내 경제특구(SEZ) 협력 포럼 설립 환영, 첨단기술 및 혁신을 주도하는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협력 관계 구축 필요성 인식</li> <li>- 브릭스 과학기술혁신(STI) 프레임워크 내에서 혁신기술 촉진을 위한 인큐베이터 및 스타트업 센터 설립 장려</li> <li>- 브릭스 신산업 혁명 파트너십(PartNIR)이 역내 산업협력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핵심 플랫폼임을 인식: 브릭스 산업 역량 센터 출범(유엔산업개발기구(UNIDO)와 협력)에 주목, PartNIR 자문그룹의 7개 부문 워킹그룹 결성 지지(화학산업, 광물 및 금속 산업, 산업의 디지털 전환, 중소기업, 지능형 제조 및 로봇 공학, 태양광 산업, 의류기기 및 제약)</li> <li>- 디지털 협력 강화(전자상거래, 5G, 인공지능(AI), 위성시스템 등), 모든 회원국에 브릭스 미래 네트워킹 연구소(BIFN)의 담당지부 선정 권장</li> </ul>
금융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다 포용적이고 공정한 국제금융제도의 필요성과 금융협력 강화 의지 재확인</li> <li>-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의 부채 취약성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해결 필요: G20 부채 처리 공통 프레임워크(Common Framework for Debt Treatments)를 주요 수단으로 검토</li> <li>- 인프라 프로젝트의 민간 자본 유치에 위한 효과적인 방식으로 혼합 금융(Blended Finance)의 중요성 인식</li> <li>- 신개발은행(NDB)을 21세기 새로운 유형의 다자개발은행(MDB)으로 발전시키는데 합의: 회원국 자격 확대, NDB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브릭스 및 글로벌 사우스로의 투자 흐름 촉진을 위한 새 투자 플랫폼 창설 이니셔티브 지지</li> <li>- 현지통화 자금조달 방안 모색 등 브릭스 은행 간 협력 메커니즘(ICM)의 혁신발전 촉진</li> <li>- 무역 장벽 최소화 및 차별없는 접근을 원칙으로 하는 국경 간 결제 수단의 이점 인식, 브릭스 역내 환거래은행망 강화, 자발적이며 구속력 없는 브릭스 국경 간 결제 이니셔티브(BCBPI)에 따른 자국통화 결제 장려 및 추가적인 논의 기대</li> <li>- 브릭스 재보험사 등 국경 간 예탁·결제 인프라인 '브릭스 Clear' 설립 타당성 검토 합의</li> <li>- 금융 안정성 강화를 위한 브릭스 위기대응기금(CRA)의 중요성 인식, 대안화폐 구상을 통한 CRA 메커니즘 개선 지지</li> </ul>
기후변화 대응 포함 기타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별 상황을 고려한 공정한 에너지 전환 필요, '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된 책임과 개별 역량(CBDR/RC)' 원칙에 따른 개도국 지원 필요</li> <li>-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등 기후변화 관련 일방적이며 차별적인 보호주의적 조치 거부</li> <li>- 기후 연구 플랫폼(BCRP) 설립 검토</li> <li>- 브릭스 환경친화적 기술(BEST) 플랫폼 틀 내에서 브릭스 깨끗한 강(Clean Rivers) 이니셔티브 발전 필요</li> <li>- 아프리카 다이아몬드 채굴 국가가 참여하는 비공식 브릭스 협력 플랫폼 출범 확인: 글로벌 다이아몬드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보장</li> <li>- 브릭스 보건의료기관 간 긴밀한 관계 발전 환영, 브릭스 R&amp;D 백신 센터 이니셔티브 및 결핵 연구 네트워크 지지, 핵의학 분야 브릭스 실무그룹 설립 환영</li> <li>- 브릭스 기술 및 직업 교육 훈련(TVET) 강화 의지 재확인</li> </ul>

구분	의제별 주요 내용
<b>[인적교류 확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릭스 인적교류의 중요성 재확인, 문화적 유대감 강화를 통한 상호이해 증진 및 연계성 강화</li> <li>- 브릭스 공동 여성 기업인 연합 디지털 플랫폼 출범(브릭스 여성 기업인 포럼 및 여성 스타트업 콘테스트 포함)</li> <li>- 브릭스 여성 기업인 연합과 글로벌 사우스 여성 기업인 간 협력 강화 지지(지역사무소 포함)</li> <li>- 브릭스 국가의 전문가 커뮤니티와 시민사회 간 유대 강화 촉진, 시민 브릭스 위원회 (Civil BRICS Council) 설립 지지</li> <li>- 브릭스 학술 포럼 및 시민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 브릭스 학술 커뮤니티 간 연구 및 역량 강화 협력 촉진, 브릭스 금융 싱크탱크 네트워크 출범 환영</li> <li>- 전통 스포츠 문화, 스포츠 과학 및 의학 분야 협력 및 지원 강화</li> <li>- 브릭스 문화 축제, 영화제, 음악 콘서트 환영, 브릭스 민속 무용 연합 설립 환영 및 브릭스 영화학교 연합 설립 장려</li> </ul>

자료: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XVI BRICS Summit Kazan Declaration"(검색일: 2024. 10. 24.) 참고하여 저자 정리.

### 3. 시사점

■ 이번 정상회의는 브릭스가 규모의 양적 확대를 넘어 서방 중심의 국제질서를 대체 또는 보완하는 마중물로 거듭날 것인가를 가늠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과 기대를 모았음.

- 2024년 1월 1일 기준, 기존 5개 회원국에서 9개 회원국으로 확대된 브릭스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파트너국(partner countries) 지위를 도입함으로써 13개국에 파트너국 자격을 부여하며 외연 확장 움직임을 지속·강화했음.
  - [브릭스 국가 △]9개 정회원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아랍에미리트(UAE), △[13개 파트너국 튀르키예,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알제리, 나이지리아, 우간다, 볼리비아, 쿠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 [브릭스 명칭] 회원국 확대에 따라, 기존 5개 회원국의 알파벳 첫 글자로 구성된 브릭스(BRICS) 명칭의 변경 여부도 주목을 받았으나, 브릭스가 이미 글로벌 브랜드와 같은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그대로 유지하는 데 암묵적 합의와 신뢰가 형성된 상황<sup>13)</sup>
- 회원국 확대 후 개최된 첫 정상회의인 만큼 브릭스 플러스(BRICS+) 구상의 기반을 공고화하는 한편, 파트너국 선정, 브릭스 플러스/아웃리치 형식의 회의를 통해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증진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둬.
  - 2024년 6월 러시아 니즈니노브고로드에서 열린 브릭스 외무장관 회의에서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브릭스가 회원국 확대를 통해 글로벌 사우스와의 연대를 촉진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으며, 빅 브릭스(Big BRICS)의 전략적 중요성과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을 위한 새로운

13) “В Кремле объяснили, добавят ли в БРИКС новые буквы после расширения”(2024. 10. 14.), РБК; “No need for BRICS to change its name after new members join — South African sherpa”(2024. 8. 24.), TASS(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4. 10. 26.).

형태의 다자협력 메커니즘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sup>14)</sup>

- 이번 정상회의 일환으로 개최된 브릭스 플러스/아웃리치 회의에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브릭스 참여(정식 회원국, 파트너 국가 또는 브릭스 플러스 형식으로 참여) 지지 의사'를 밝힘.<sup>15)</sup>

■ 확장된 브릭스의 미래에 대해 '회원국 간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의 차이에 따른 내부 응집력 약화와 와해 가능성'을 부정적인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으나, 브릭스 회원국이 본질적으로 '다자주의 연대'라는 분명한 공통의 목표를 바탕으로 결집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은 높다고 보임.

-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회원국 확대에 따른 브릭스 내부의 결속 저해와 갈등 요인을 고려하여 회원국 간 연대 및 협력 강화를 주요 의제로 논의했음.
  - 정규 회원국을 늘리지 않고 파트너국 지위를 도입한 것도 회원국 확대에 따른 내부의 입장 차이와 갈등 요인을 고려하여 점진적인 확대를 모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브릭스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다양성과 포용성'을 고려할 때, 브릭스는 비서방(반서방이 아닌) 대화·협력체로서 기존 국제질서를 완전히 대체한다기보다는 보완적 차원에서 효율적인 다자협력 메커니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큼.<sup>16)</sup>
  - 최근 러시아는 브릭스가 구축한 다자 간·양자 간·지역 간 상호작용 메커니즘을 '유기적 매트릭스(organic matrix)'로 일컬으며, '브릭스는 단순한 정치적 집단이 아닌 다양한 세계적 과제에 대응하는 역동적인 네트워크이며, 강제적인 방식으로 확대·발전해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히려 견고한 지속성을 갖고 있음'을 강조함.<sup>17)</sup>

■ 브릭스의 미래를 예측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브릭스가 세계경제의 화두가 되었고 국제사회의 중요한 변화를 상징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며, 세계의 다수를 차지하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서 브릭스의 위상과 영향력은 확대될 가능성이 큼.

-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중 브릭스 국가가 7개국으로 확대되었고, △아세안(ASEAN) 회원국 10개국 중 4개국이 브릭스에 참여하게 됨.
  - 브릭스 국가 중 G20 회원국: [7개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 브릭스 국가 중 아세안 회원국: [4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 향후 브릭스의 확대와 발전 흐름이 글로벌 거버넌스에 미칠 영향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브릭스의 발전에 대한 모니터링 지속·강화, △브릭스와 글로벌 사우스 관계 발전에 대한 주변국 정책 대응 파악 등 필요 **KIEP**

14) 강부균(2024. 10. 22.), 「[KIEP 동향세미나] 2024년 러시아 브릭스 정상회의 주요 의제와 전망」, Emerics(검색일: 2024. 10. 26.).

15) The State Council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2024. 10. 24.), "Full Text: Address by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at 'BRICS Plus' leaders' dialogue"(검색일: 2024. 10. 27.).

16) RIAC(2024. 10. 23.), "What BRICS Cannot and What It Can Deliver"(검색일: 2024. 10. 27.).

17) Valdai Discussion Club(2024. 10. 23.), "An Organic Matrix: The Evolution of Russia's Rhetoric on BRICS from 2009 to 2023"(검색일: 2024. 10. 27.).